

다운증과 비다운증 정신지체인의 성격특성 비교

김 정 은
(부산대학교)

Personality comparison between the mental retarded with and without Down Syndrome

Joung-Eun KIM

Pusan National University

(Received February 2, 2007 / Accepted March 21, 2007)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personality existed in the populations of the mentally retarded with and without Down syndrome. For this purpose, two research questions were proposed. (a) Is there any difference of personality existed between two groups? (b) Is there any difference of sub-personality existed between two groups by disability degree? Participants in this are 159 people with mental retardation(the mentally retarded with Down syndrom: 82, the mentally retarded without Down syndrom : 77) in P and S cities.

First of all, the reliability in measurement instrument was verified through a pre-study. For the first research question, t-test was used. And two way ANOVA was used to investigate the second research ques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the result of t-tes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of personality scores between two groups. An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mentally retarded with and without Down syndrome regard to expectation of success, outerdirectedness, positive or negative responding tendency, curiosity among sub-personality factors. Second, the result of the two way ANOVA analysis, no meaningful statistically difference in personality by degree of the impairment. But It showed difference regard to effectancy motivation, expectation of success, curiosity among sub-personality factors between the mentally retarded with and without Down syndrome by impairment degree.

Key Words : the mentally retarded with Down syndrome, the mentally retarded, personality of the mentally retarded

I. 서론

정신지체 영역에 대한 관심은 그동안 정신지체인들이 보여주는 인지적, 신체적, 정의적 요소에 관한 많은 논문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것을 통해 그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 사실 그동안 정신지체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꾸준히 수행됨으로 인해 정신지체인들은 능력에 결함이 있다는 잘못 이해하고 있던 오해들을 해소할 수 있었고,

보다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동안의 여러 연구들의 결과들에 의해 정신지체인을 이해할 수 있는 순기능적 측면만 가졌던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연구결과들에 의해 정신지체인의 특성이 모호해지기도 하고 이로 인해 혼란감이 생기기도 하였다. 이러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정신지체인의 능력에 관한 것이다. 즉, 정신지체인의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해주는

† Corresponding author : 051-510-1677, kimje@naver.com

근거는 지능지수이며 이 지수가 정인지체인의 발달가능성을 예견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다. 그러나 사실 지능지수가 사회적응의 기준에 따라 개인이 평가되는 행동의 질 그 이상은 설명해 주지 못한다(Beirne-Smith, et al., 2002; Zigler, et al., 1999). 그리고 지능과 일반적으로 ‘지적(intellectual)’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적응적 혹은 사회적으로 유능한 행동들은 명확한 기준으로 구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인지체인을 이해하기 위하여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은 정인지체인을 지적인 결함을 가진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전인적인 인간으로서의 한 개인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관점에서 정인지체인의 지적결함에 초점을 두어 이들을 이해하기 보다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사회적 능력과 적응력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정인지체인을 평균보다 지능이 떨어진다는 부정적이고, 불완전하고, 열등한 존재로 생각하는 일반적인 입장들을 보다 인지적 결함이 정인지체의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라 오히려 특정한 행동을 제대로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보이거나 결함을 가지는 것으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지적인 능력은 사회적 적응을 하는데 있어 학업, 교우관계, 사회성, 성격 등을 판단하는데 유용한 것(강영심, 황순영, 2006; Wagner & Sternberg, 1986)된다. 그러나 정인지체학생들은 낮은 지적능력으로 인하여 학교나 가정, 사회생활 등에서 성공에 대한 낮은 기대를 받게 되고 학습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고정된 선입견으로 인한 불이익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정인지체인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하고, 이들이 사회적 적응을 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정인지체인의 정서적, 심리적 성격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그들의 환경이나 지적수준, 건강상의 문제를 파악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이러한 입장을 지지해 주는 최근의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정인지체인의 학교생활 적응을 예측할 수 있는 주요 변

인이 지능보다는 성격변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강영심, 황순영, 2006)와 정인지체 학생의 학업수행과 사회적 적응에 있어서 인지적 요인보다 비인지적 요인이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연구들이 있다(Merighi, et al., 1990; Switzky, 1997; Zigler & Hodapp, 1986).

사실, 정인지체인들은 일반인과 동일한 기본적인 심리·사회적인 요구를 가지고 있지만(Yando & Zigler, 1971), 일반인들과 다른 환경에 접하거나 부정적인 사회적 경험들을 많이 경험함으로써 일반인들과 구별되는 행동양식을 발달시키게 된다(Zigler, et al., 1999). 예를 들면, 정인지체인들은 새로운 과제에 직면했을 때 성공보다는 실패에 대한 기대가 높고(MaMillan & Keough, 1971),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부족(Licht, 1983; Klingsinck, 1993)한 동시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서를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는 외부지향성이 강하다(MacMillan & Wright, 1974). 또한 성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낮은 사람을 지나치게 경계하는 상반된 특성을 보인다는 연구결과들도 있다(Balla, et al., 1980). 이러한 정인지체인들의 심리·사회적 특성은 이들의 독특한 성격특성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며, 과제 수행이나 대인관계, 환경과의 상호작용 등의 모든 영역에 제한을 가지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정인지체인의 성격특성이 이상과 같이 연구결과로 보고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일반적인 특성일 뿐 정인지체인 집단 내에서도 그 특성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왜냐하면, 정인지체라는 큰 범주아래에는 다운 증후군(Down), 취약X증후군(fragile X)과 같은 병인의 종류, 시설 수용 여부 등에 의하여 정인지체 하위 유형이 분류되고 이들에 따라 그 심리·사회적 특성을 다르게 나타낸다. 즉, 정인지체라는 장애 범주에 같이 속한다고 할지라도 하위범주에 따라 세부적 특성은 다를 수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유전학과 신경생리학 및 의학기술의 발달, 계

놈 프로젝트 등의 영향으로 정신지체의 다양한 병인에 대한 특성과 원인들이 밝혀지면서 유전적 병인에 따라 성격특성이 다르다는 연구결과들(Dykens & Cassidy, 1995; Dykens, Shah, & King, 2002; Freeman & Kasari, 2002)이 제시되면서 정신지체 병인도 그들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배경변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시설에 거주하는 정신지체인들의 경우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경험이 부족하여 성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회피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Dulaney & Ellis, 1997; Zigler & Bennett-Gates, 2002). 이처럼 정신지체는 동일한 정신지체라는 장애 범주에 속한다 할지라도 다양한 특성을 보여주는 이질적인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다.

현재 정신지체 하위유형에 따른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로 다운 증후군, 취 X 증후군, 윌리엄증후군, 프레더 윌리 증후군에 관한 것들로 이 중에서도 다운 증후군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소개가 많이 되고 있다. 다운증 정신지체인은 정신지체의 다른 하위 유형에 비해 그 역사가 길고 출현율도 높기때문에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Cicchetti & Sroufe, 1976; Dykens et al., 1992). 지금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다운 증후군은 사회적 기능에 있어서 비교적 강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Gibbs & Thorpe, 1983; Rodgers, 1987; Wishart & Johnston, 1990). Freeman과 Kasari(2002)는 대다수의 다운 증후군이 또래와 긍정적인 우정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사회적 기술에 있어서의 강점을 이용해서 약점들을 보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운 증후군은 주로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웃음과 같은 정서표현을 사용하고 이로 인해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를 가져온다(Freeman & Kasari, 2002). 그리고 부모나 또래, 교사들이 다운 증후군의 성격을 평정한 Wishart와 Johnston(1990)의 연구에 의하면 사교적이고 밝고

애정이 넘치는 이들의 성격 특성들이 그대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다운증 정신지체인의 부모들이 다른 장애학생의 부모보다도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 간의 결속도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Belser & Sudhalter, 2001).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들은 대부분 관찰 등의 비형식적인 평가에 의존하고 있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발되어진 성격 검사도구를 사용하여 다운증 정신지체인을 평가한 결과이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만으로는 다운증 정신지체인의 독특한 성격 특성을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신지체인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성격 검사도구를 활용하여 다운증과 비다운증 정신지체인의 성격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교육적 증진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운증과 비다운증의 정신지체인의 성격 특성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다운증과 비다운증의 정신지체인의 장애 정도에 따라 성격특성에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S, P도시에 소재하고 있는 정신지체 특수학교 및 복지관의 정신지체인 159명이다. 먼저 비다운증 정신지체인의 선정에서는 정신지체인이 소속된 특수학교교사의 도움을 받아 선정하였으며, 비다운증 정신지체인의 경우는 특수학교 및 다운복지관에 소속된 이들로 무선 표집하였다.

특히, 다운 및 비다운증 정신지체인의 선별기준은 특수학교 교사들이 선별한 아동들로, 정신지체학생은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IQ 75이하이면서 적응행동에 결함이 있어 정신지체로 진

단을 받고 특수학교 또는 복지관에 재학중인 이
들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배경정보는 <표 1>
과 같다.

<표 1> 다운 및 비다운 정신지체인의 집단별
특징

	성별	빈도(%)	장애정도	빈도(%)
비다운	남	45(58.4)	경도	57(74)
	여	32(41.6)	중도	20(26)
	전체	77(100)	전체	77(100)
다운	남	52(63.4)	경도	68(82.9)
	여	30(36.6)	중도	14(17.1)
	전체	82(100)	전체	82(100)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정신지체학생의 성격을 유형화
하기 위한 검사도구로 Zigler 등(1999)이 제작한
EZ-Yale Personality Questionnaire(이하: EZPQ)
를 번안하여 사용하였으며, EZPQ의 구성과 타당
도 및 신뢰도 검증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검사도구의 구성

본 연구에서 사용된 EZPQ는 정신지체학생들
의 성격 기능에 대한 보다 나은 특징들을 보여 줄
수 있는 검사도구로서, 성격-동기 구성과 관련된
총 3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척도는 전
체 7개 - 효능동기, 성공기대감, 긍정적 반응경향,
부정적 반응경향, 외부지향성, 순종, 호기심/창조
성-로 이루어져있다. 먼저 효능동기는 새롭거나
어려운 과제에 대한 도전의식을 의미하고, 성공기
대는 새로운 과제에 대한 기대감을 뜻하며 외부
지향성은 과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타인을 모방
하거나 외적단서에 의존하는 특성이다. 또한 타인
에 의한 사회적 강화에 대한 욕구를 나타내는 특
성은 긍정적 반응경향성이고, 타인에 대한 경계를
나타내는 특성은 부정적 반응경향성이다. 이와 더
불어 순종은 스스로 행동을 결정하지 못하고 타
인의 지시를 따르는 특성이며 호기심과 창조성은
외부의 환경에 관심을 가지거나 자신의 생각대로

과제를 수행하는 특성을 말한다.

본 연구의 측정도구인 EZPQ의 구성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EZPQ의 구성내용

하위척도	문항번호	문항수
효능동기	1, 14, 21, 26, 29, 33, 36	7
성공기대감	6, 15*, 25, 30, 35	5
외부지향성	5, 10, 13, 17, 20, 32, 37	7
긍정적 반응경향	7, 12, 19, 22, 34	5
부정적 반응경향	2, 4, 11, 18, 23, 31	6
순종	3, 8*, 24*, 28	4
호기심 /창조성	9, 16, 27	3
계		37

* 역채점 문항

이상과 같이 정신지체의 성격검사도구인
EZPQ는 학생의 행동을 잘 알고 있는 교사가 각
문항에 대해 1점(전혀 아니다)에서 5점(아주 그렇
다)으로 평가하는 5점 척도의 교사보고식 검사이
다. 본 검사의 전체점수는 37점에서 185점의 범위
로 EZPQ에서 전체점수가 높을수록 좀 더 긍정적
이라고 할 수 있다.

나. EZPQ의 타당도

EZPQ 검사도구가 우리나라 정신지체학생의
성격특성을 측정하는데 적절한지를 알아보기 위
하여 실시한 본 연구의 타당도 검증과정은 특수
교육전문가 2인과 심리검사전문가 1인에게 내용
타당도를 검증 받았다. 그리고 측정도구의 문항들
이 번역상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특수교사 10인과 개별면담을 실시하였고, 면
담결과 80%이상 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반응하는
문항은 수정하였다.

다. EZPQ의 신뢰도

EZPQ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76 \sim .91$, 반

다운증과 비다운증 정신지체인의 성격특성 비교

분신뢰도 상관계수는 $r = .84$ 이며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전체 $r = .80$ 으로 높은 편이다($p < .001$). 이에 신뢰도가 높게 인정되는 이 검사도구를 정신지체학생의 성격을 측정하는 검사로서 각 문항이 안정적으로 일관성 있게 측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측정도구가 얼마나 정확하게 오차 없이 측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정신지체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나온 Cronbach $\alpha = .73$ 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3. 자료처리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연구문제를 자료처리 하였다.

첫째, 다운증 정신지체인과 비다운증 정신지체인의 성격특성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둘째, 다운증과 비다운증의 정신지체인의 장애 정도에 따라 성격특성에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이원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다운증과 비다운증 정신지체인의 성격특성의 전체점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2.01, p < .05$). 즉, 다운증 정신지체인이 비다운증 정신지체인보다 더 긍정적인 성격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다운증과 비다운증 정신지체인의 7가지 하위 성격특성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다운증과 비다운증 정신지체인의 하위 성격특성에 대한 차이검증

성격요인	다운증 (N=82)		비다운증 (N=77)		t
	M	SD	M	SD	
효능동기	2.27	0.41	2.20	0.43	1.32
성공기대	2.70	0.40	1.08	0.40	4.21***
외부지향성	2.43	0.20	1.73	0.19	-5.45***
긍정적 반응경향	2.42	0.19	1.76	0.52	-4.21***
부정적 반응경향	2.33	1.32	2.48	0.08	-1.87
순종	1.23	0.40	1.88	0.26	.88
호기심	2.94	0.28	0.32	0.33	4.45***

* $p < .05$, *** $p < .001$

이상의 <표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다운증 정신지체인과 비다운증 정신지체인간의 하위 성격특성을 비교해 보면 다운증 정신지체인이 비다운증 정신지체인보다 성공기대($t=4.21, p < .001$), 호기심($t=4.45, p <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의 성격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외부지향성($t=-5.45, p < .001$), 긍정적 반응경향($t=-4.21, p < .001$)과 같은 성격 특성에서는 다운증 정신지체인이 비다운증 정신지체인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III. 연구결과

1. 다운증과 비다운증 정신지체인의 성격 특성 비교

다운증과 비다운증 정신지체인의 성격특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와 같다.

<표 3> 일반학생과 정신지체학생의 성격검사 점수에 대한 차이검증

	다운증 (N=82)		비다운증 (N=77)		t
	M	SD	M	SD	
성격	3.24	1.23	2.68	1.02	2.01*

* $p < .05$

2. 다운증과 비다운증 정신지체인의 장애 정도에 따른 성격 특성 비교

다운증과 비다운증 정신지체인의 장애 정도를 크게 경도와 중도로 구분하여 이에 따른 성격특

성을 비교한 결과는 <표 5>과 같다.

<표 5> 다운증과 비다운증 정신지체인의 장애 정도에 따른 성격검사 점수

	장애 정도	다운증			비다운증		
		N	M	SD	N	M	SD
성격	경도	68	2.98	2.34	57	2.40	2.37
	중도	14	2.46	2.06	20	2.33	1.43

이상의 <표 5>에서 다운증과 비다운증 정신지체인의 장애 정도에 따른 성격검사 점수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평균, 표준편차를 살펴보았다. 다운증 정신지체인의 경우 경도 장애가 중도장애보다 더 긍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며(경도: M=2.98, 중도: M=2.46), 비다운증 정신지체인의 경우에도 경도 장애가 중도장애보다 더 긍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경도: M=2.40, 중도: M=2.43). 그리고 장애 정도에 따라 다운증 정신지체인이 비다운증 정신지체인간의 점수차이를 살펴보면, 다운증 정신지체인이 경도와 중도간의 성격점수의 차이가 더 많이 나타났다.

한편, 다운증과 비다운증 정신지체인이 장애 정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와 같다.

<표 6> 다운증과 비다운증 정신지체인의 성격점수와 장애 정도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변량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성격	장애종류	48.10	1	48.10	4.30**
	장애정도	13.20	1	13.20	2.83
	장애 종류 * 정도	1.36	1	1.36	.29
	오차	532.42	76	4.67	

**p < .01

위의 <표 6>에 의하면 장애 정도에 따른 전체 성격은 다운증과 비다운증 정신지체인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운증과 비다운증 정신지체인의 장애 정도에 따른 성격 하위변인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그 결과는 <표 7>와 같다.

<표 7> 다운증과 비다운증 정신지체인의 장애 정도에 따른 성격검사 점수

하위 영역	장애 정도	다운증			비다운증		
		N	M	SD	N	M	SD
효능동기	경도	68	2.11	.79	57	1.49	.72
	중도	14	2.32	.73	20	2.31	.60
성공기대감	경도	68	2.73	.63	57	2.38	.60
	중도	14	2.74	.68	20	2.58	.50
외부지향성	경도	68	2.91	.73	57	3.03	.37
	중도	14	3.09	.43	20	3.08	.52
긍정적 반응경향	경도	68	3.08	.60	57	2.96	.62
	중도	14	3.16	.78	20	2.99	.63
호기심	경도	68	3.15	.61	57	2.54	1.04
	중도	14	3.15	.72	20	2.86	.75

이상의 <표 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다운증과 비다운증 정신지체인의 장애 정도에 따른 하위 성격검사 점수에 대한 차이는 다운증 정신지체인의 경우에 효능동기에서 중도 장애일 경우가 경도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경도: M=2.11, 중도: M=2.32). 그리고 긍정적 반응경향서도 다운증 정신지체인의 경우에 효능동기에서 중도 장애일 경우가 경도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경도: M=3.08, 중도: M=3.16). 특히, 효능동기에서는 비다운증 정신지체인도 다운증 정신지체인과 마찬가지로 중도 장애일 경우가 경도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경도: M=1.49, 중도: M=2.41).

한편, 다운증과 비다운증 정신지체인이 장애 정도에 따라 하위성격 특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성격에 대한 하위 영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애 정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효능동기와 긍정적 반응경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는 아니지만 비다운증 정신지체인에서 중도 장애 일 경우에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표 8> 다운증과 비다운증 정신지체인의 장애 정도에 따른 성격변인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변량원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곱	F
효능동기	장애종류	8.33	1	8.33	5.69***
	장애정도	1.84	1	1.84	3.46
	장애종류 * 정도	7.32	1	7.32	.14
	오차	60.49	76	.53	
성공기대감	장애종류	1.73	1	1.73	4.62*
	장애정도	.29	1	.29	.77
	장애종류 * 정도	.25	1	.25	.68
	오차	42.70	76	.38	
외부지향성	장애종류	9.72	1	.72	.30
	장애정도	.35	1	.35	1.07
	장애종류 * 정도	.10	1	.10	.31
	오차	37.55	76	.33	
긍정적 반응	장애종류	.56	1	.56	1.34
	장애정도	8.64	1	8.64	.21
	장애종류 * 정도	1.46	1	1.46	.04
	오차	47.37	76	.42	
호기심	장애종류	5.29	1	5.29	4.80**
	장애정도	.73	1	.73	1.21
	장애종류 * 정도	.69	1	.69	1.15
	오차	68.53	76	.60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다운증과 비다운증 정신지체인이 가지고 있는 성격특성이 차이가 있음을 이해하여 정신지체인을 보다 개별적인 특성을 가진 존재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선행연구와 관련하여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다운증과 비다운증 정신지체

인의 전체 성격특성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격의 하위요인에서는 성공기대, 외부지향성, 긍정적 반응경향, 호기심 등 4개 하위 영역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다운증을 가진 정신지체인이 비다운증 정신지체인에 비해 이들 4개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다. 이는 그동안 일반적으로 소개된 다운증 정신지체인의 특성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으로, 다운증후군 정신지체인은 전반적으로 발달수준이 지체되기는 하지만 성격이 명랑하고 사회적이며 (Charles & Wenar, 1998; Gibbs & Thorpe, 1983; Hodapp & Zigler, 1997; Jarrold, Baddeley, 7 hEWS, 1999; Rodgers, 1987; Wishart & Johnston, 1990), 비교적 사회적 기능에 강점을 가지고 있음을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성격의 하위특성에 대한 다운증과 비다운증 정신지체인의 성격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운증 정신지체인이 외적 단서에 의존하는 외부지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잘못된 외적 단서의 경우에 조차도 그 단서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운증 정신지체인이 비다운 정신지체인에 비해 보다 사회성이 더 발달되어 있어 외부에 의존하거나 주위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거나 혹은 사회적 접촉을 유지하는데 더 관심을 가지기 위한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Denham, 1993; Kasari & Freeman, 2002; Kichansk & Aksan, 1995). 또한 이러한 성격 특성은 다운증 정신지체인이 보여준 긍정적 반응경향의 우세함과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으로, 다운증 정신지체인이 가지고 있는 또래와의 긍정적인 우정을 형성하거나 자신들이 가지고 사회적 기술을 강점으로 활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의 결과는 다운증 정신지체인이 긍정적인 성격특성을 통해 학교나 가정 및 사회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교육적 지원방안을 잘 활용할 경우 보다 높은 교육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다운증 정신지체인과 비다운증 정신지체 인간의 장애정도에 따라 성격특성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경도와 중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대상의 수가 경도와 중도에 차이가 크고 중도 정신지체인의 대상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장애정도에 따른 성격 특성의 차이는 연구대상의 수를 충분히 확보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장애정도에 따른 전체 성격 특성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본 연구결과에서 다운증 여부에 관계없이 효능동기와 긍정적 반응경향에서 장애정도가 심할수록 더 높은 점수를 보여주었다. 특히 다운증 정신지체인의 경우 장애정도가 더 심한 중도에서 더 많은 점수의 차이를 보여주었는데 이는 경도 장애일 경우 통합된 장면에서 일반인들이 수행해야 하는 과제에 보다 더 많이 노출됨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능동기 및 긍정적 반응경향을 나타나게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Lustman & Zigler, 1982; Zigler, Hodapp, 1986). 즉, 중도 장애일 경우 장애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경도보다 학업과 관련된 과제 수행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적어 실패의 경험을 적게 하게 되어 자신에 대한 효능동기를 더 높게 지각할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효능동기는 실패의 경험과 관련되는 특성으로 경도 정신지체인의 경우에는 중도에 비해 학업과 관련된 환경에 비교적 더 많이 노출되어 부정적인 경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현재까지 밝혀진 선행연구를 통하여 추정되는 부분으로 장애 정도에 대한 성격특성에 대한 논의는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하여 좀 더 자료를 축적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정신지체인의 성격특성에 관한 후속연구를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다운증과 비다운증 정신지체인을 표집하여 이들의 성격특성을 비교 분석

하였다. 그러나 학교 장면에서 다운증 정신지체인을 표집하기가 쉽지 않았던 연구의 제한점이 있어 다운 복지관에서 이들을 표집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연령, 지능지수 등을 충분히 고려한 연구 설계가 되지 못한 부분이 본 연구의 한계점이므로 향후 연령, 성별, 지능지수 등과 같은 관련 배경변인들을 적절하게 고려하여 심층적인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결과에서 밝히 바와 같이 다운증과 비다운증 정신지체인들의 성격변인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었다. 앞으로 이들이 학교, 가정 및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신지체인으로 범주화할 것이 아니라 보다 세부적으로 또는 개별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긍정적인 성격을 가진 다운증 또는 비다운증 정신지체인과 부정적 성격을 가진 다운증과 비다운증 정신지체인을 구분하여 이들이 가지고 성격의 특성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교육적 지원방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셋째, 본 연구는 정신지체인의 병인 중에 다운증 유무에 따라 성격특성을 분석해 보았지만 이 결과들을 기초자료로 하여 앞으로 프레더윌리, 취 X증후군, 윌리엄 증후군 등과 같은 다양한 병인들을 함께 고려하여 성격특성을 다차원적으로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강영심, 황순영. 정신지체학생의 학교생활적응도에 대한 지능과 성격의 예측력 비교. 특수교육연구, 13(1), pp.159~178, 2006.
- 한현민. 성공경험, 목표설정 및 귀인훈련이 정신지체아의 비인지적 동기특성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 Balla, D. Kossan, N. Zigler, E. Effects of preinstitutional history and institutional-

- zation on the behavior of the retarded. Unpublished manuscript, Yale University, New Haven, CT, 1980.
- Beirne-Smith, M., Ittenbach, R.F. Patton, J.R. Mental Retardation. New Jersey : Merrill Prentice hal, 2002.
- Belser, R.C., Sudhalter, V. Conversational characteristics of children with fragile X Syndrome: Repetitive speech. American Journal on Mental Retardation, 106, pp.28~38, 2001.
- Belser, R.C. Sudhalter, V. Arousal difficulties in males with fragile X syndrome: A preliminary report. Developmental Brain Dysfunction, 8, pp.270~270, 1995.
- Bybee, J.Zigler, E. Is outerdirectedness employed in a harmful or beneficial manner by normal and mentally retarded children? American Journal of Mental Retardation, 96, pp.512~521, 1992.
- Dulaney, C., Ellis, N. Rigidity in the behavior of mentally retarded persons. In MacLean, Jr. W.(ed), Ellis handbook of mental deficiency, psychological theory and research(3rd ed., 173~197). Mahwah, NJ: Erlbaum, 1997.
- Dykens, E.M. Hodapp, R.M., Walsh, K. Nash, L.J. Adaptive and maladaptive behavior in Prader-Willi syndrome.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1, pp.1131~1136, 1992.
- Dykens, E. Shah, B. Beck, T. King, B.H. Maladaptive behavior in children ad adolescent with Down Syndrome. Journal of Intellectual & Developmental Disabilities, 46, pp.484~492, 2002.
- Dykens, E.M. Cassidy, S.B. Correlates of maladaptive behavior in children and adults with Prader-Willi syndrome. American Journal of Medical Genetics(Neuropsychiatric Genetics, 60, pp.546~549, 1995.
- Freeman, S.F. Kasari, C.. Characteristics and qualities of the play dates of children with Down syndrome: Emerging or true friendship?. American Journal of Mental Retardation, 107, p.1, 2002.
- Cicchetti, D. Sroufe, L. A. The relationship between affective and cognition development in Down's Syndrome. Child Development, 34, p.728, 1976.
- Gibbs, M.V. Thorpe, J.G., Personality stereotype of noninstitutionalized Down Syndrome children. American Journal of Mental Deficiency, 87, p.605, 1983.
- Hodapp, R. M., & Zigler, E. New issues in the developmental approach to mental retardation. In W.E. MacLean, Jr.(Ed.), Ellis' handbook of mental deficiency, psychological theory, and research(3rd ed., pp.115~136).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1997.
- Jarrold C, Baddeley A. D. & Hews A. K. Genetically dissociated components of working memory: evidence from Down's and Williams syndrome. Neuropsychologia 37: pp.637~651, 1999.
- Klingsick, J.D. Effects of Goal-Setting Training on the locus-of-control orientations of mildly handicapped children,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54, 2115A, 1993.
- Licht, B.G. Cognitive-motivational factors that contribute to the achievement of learning disabled children. Journal of Learning Disabilities, 16, pp.483~190, 1983.
- MacMillan, D. L. Keough, B. K. Normal and

- retarded children's expectancy for failure, *Developmental Psychology*, 4, pp.343~348, 1971.
- MacMillan, D.L. Wright, D.L. Outerdirectedness in Children of three ages as a function of experimentally induced success and failur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6, pp.919~925, 1974.
- Merighi, J. Edison, M. Zigler, E.. The role of motivational factors in the functioning of mentally retarded individuals. In Hodapp, J.R. Burack, & E., 1990.
- Rodgers, C. Maternal support for the Down syndrome stereotype: The effect of direct experience of condition, *American Journal of Mental Deficiency*, 31, pp.271~278, 1987.
- Shallenberger, P. Zigler, E. Rigidity, negative reaction tendencies, and cosatitaion effects in normal and feebleminded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3, pp.20~26, 1961.
- Switzky, H.N. Individual differences in personality and motivational systems in persons with mental retardation. In W.E. MacLean(ed), *Ellis' handbook of mental deficiency, psychological theory and research*, (3ed., pp.343~377), Hillsdale: NJ: Erlbaum, 1997.
- Wagner, R.K. Sternberg, R.J. Tacit knowledge and intelligence in everyday world. In Sternberg R.J. & Wagner R. K.(Eds), *Practical Intelligence Nature and origins of competence in the everyday world*, 51~83,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 Wisharrt, J.G. · Johnston, F.H. The effects of experience on attribution of a stereotyped personality to children with Down Syndrome. *American Journal of Mental Deficiency*, 34, pp.409~420, 1990.
- Yando, R. · Zigler, E. Outerdirectedness in the problem solving of institutionalized and noninstitutionalized normal and retarded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4, pp.277~288, 1971.
- Zigler, E. The individual with mental retardation as a whole person. In E. Zigler & D. Bennett-Gates(Eds.). *Personality development in individuals with mental retard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 Zigler, E. Bennett-Gates, D. Hodapp, D. *Personality development in individuals with mental retard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 Zigler, E. Bennett-Gates, D. Hodapp, R. Henrich, C.C. Assessing personality traits with mental retardation, *American journal of mental retardation*, 107(30), pp.181~193, 2002.
- Zigler, E. Hodapp, R. *Understanding mental retarda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